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8.16(금) ~ 2024.8.22(목)

제공일시 2024 08 3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8.16(금) ~ 2024.8.22(목)

제공일시 2024 08 3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美정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지지... 미국 화학협회 “제조업에 대한 배신”

-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생산국인 미국이 주요 정책 전환을 통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각) 해외 미디어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함. 로이터의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각)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입장 변화에 대해 브리핑한 것으로 확인됨

- 플라스틱 협약 당사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생산량 감축과 재활용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두고 참여하게 갈등 중임

- 미국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협상위원회에서 지지 선언을 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임팩트온 2024.8.19\)](#)

2. “日 탄소 다배출 산업, 녹색전환 가속도... 금융·세제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세계 5위권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일본이 최근 기업들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기반으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에 속도를 내고 있음

-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일본 배출권거래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GX 전략의 핵심 목표로 ‘경제성장’을 내걸고 탈탄소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투자 촉진책 등을 잇따라 발표해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는 평가임

-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및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를 시행 중임

[\(헤럴드경제 2024.8.20\)](#)

3. 美 AI 규제법, 이달 말 통과될 듯... “韓도 포괄적 기본법 시급”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인공지능(AI)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발사에 책임을 지우는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에는 구글, 메타 등 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어서 업계 비상이 걸린 셈

- 캘리포니아에서 AI법이 통과되면 다른 주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임

- 1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와 테크크런치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캘리포니아주 하원 예산위원회는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ct)’ 수정안을 통과시킴

[\(조선비즈 2024.8.19\)](#)

국내 정책

1. 정부, 배터리 탈부착 방식 늘린다

-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전기차 도입을 추진함. 장기적으로 배터리 과충전에 따른 화재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방침임
- 19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배터리 탈부착 전기자동차 제도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함. 정부는 우선 배터리 탈부착 기술의 성숙도를 파악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모색할 전망이다
- 한편, 정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을 내놓으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임

[\(매일경제 2024.8.19\)](#)

2. 금융권 숙원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사라진다 [위클리금융]

-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완화 절차를 밟을 예정임. 가명정보의 개인신용정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지금보다 정교한 맞춤형 상품 개발도 기대되고 있음
- 이번 로드맵에 따라 망분리 규제는 1·2·3단계로 나눠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용해 진행함
- 1단계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권의 요구가 높은 부분부터 해결함. 대표적으로 생성형 AI 활용 허용과 SaaS 이용 범위 확대가 이에 해당함. 연구·개발분야 망분리 규제도 '물리적' 망분리가 아닌 '논리적' 망분리로 완화함. 디지털금융보안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함

[\(이데일리 2024.8.17\)](#)

3. 회계기준원 "2025년도까지 ESG 기준공시 교육자료 발표"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발표한 ESG 공시 지침 및 교육자료에 대한 내용이 2025년에 나올 예정임. 회계기준원은 오는 하반기 이에 따른 최종 기준을 발표하고, 2025년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임
- 20일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은 '자본시장 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힘
- 김 실장은 "우리나라 정부도 기업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전환과 관련해 ESG 내용을 공시에 포함하는 제도를 고려 중"이라면서 "앞으로 ESG 관련 공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비교 가능하고 일관된 정보가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아주경제 2024.8.20\)](#)

글로벌 기업

1. GM, 미국산 태양광 패널로 역대 최대규모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

-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이하 GM)가 미시간주에 위치한 에너지회사 CMS에너지의 계열사인 노스스타 클린 에너지(NorthStar Clean Energy)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EV리포트, ESG투데이, 클린테크니카가 최근 보도함

- 이번에 GM이 체결한 재생에너지 계약은 15년짜리로, GM의 주요 조립 공장 3곳인 미시간 주의 랜싱 델타 타운십 공장과 랜싱 그랜드 리버 공장, 미주리 주의 웬츠빌 공장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됨

[\(임팩트온 2024.8.20\)](#)

2. 포드, 내년 테네시공장서 상용차 배터리 생산

- 2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포드자동차는 순수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하기 위해 테네시의 새로운 공장에서 내년부터 상용차용 배터리를 생산함

- 포드자동차는 2026년 하이브리드 모델과 전기 상용차 개발에 이어 2027년에는 2대의 전기 픽업트럭을 개발한다는 계획임. 전기 픽업트럭은 현재 건설 중인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임

[\(서울경제 2024.8.21\)](#)

3. 빌게이츠 투자 철 이용한 ESS배터리 폼에너지, 미 최대 규모 배터리시설 건설

- MS 창업자 빌게이츠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유명한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스타트업 폼에너지(Form Energy)가 미 메인주에서 세계 최대 용량의 배터리 저장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1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밝힘

- 카나리미디어에 의하면, 이번 폼에너지 프로젝트는 미 에너지부의 3억8900만 달러(약 5347억원)의 보조금으로부터 제공되는데, 메인주 인근 지역의 해상풍력으로부터 지역 전체에 전력을 송배전하기 위해 이번 배터리저장시설이 사용될 전망이다

[\(임팩트온 2024.8.19\)](#)

4. 中 BYD, 파키스탄 '전기차 공장' 설립하나

- 중국 전기차 기업 BYD가 파키스탄에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짐. 블룸버그는 이에 정통한 취재원을 인용해, BYD가 파키스탄 카라치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고 16일 보도함

- 이 취재원은 BYD는 현지 전력 기업 허브파워의 자회사 메가모터스와 합작해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전함. BYD 카라치 공장은 토요타나 스즈키자동차, 기아 등 자동차 기업들의 현지 공장 근처에 설립되며, 오는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함

[\(지디넷코리아 2024.8.16\)](#)

국내 기업

1. 삼성, 베트남에 반도체 패키징 라인 세운다

-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반도체 패키징 라인 구축을 추진함. 해외 패키징 공장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러브콜'에 따른 전략적 투자로 해석됨

- 현지에는 삼성전자 휴대폰과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대규모 라인이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임.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동시에 'K-산업단지' 수출에도 드라이브를 건다는 구상임

[\(머니투데이 2024.8.21\)](#)

2. 에코프로비엠, 中 GEM과 전구체 수급 협력

- 에코프로가 이차전지 소재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전구체 제조사 GEM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 에코프로는 가족사 에코프로비엠과 GEM이 이달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주에 위치한 니켈 제련소 QMB에서 원재료와 전체 밸류체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힘

- 두 회사는 이번 MOU를 통해 △니켈 원재료 확보 △중장기 전구체 공급 △전략적 연구 메커니즘 구축 등 니켈,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전체 밸류체인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지디넷코리아 2024.8.20\)](#)

3. LS마린, 세계 최대 규모급 포설선 구매... 대양 해저케이블 시공 공략한다

- LS마린솔루션(LS마린)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전용 포설선(Cable Laying Vessel, CLV) 구입을 추진하고 있음. 심해케이블 시공 능력을 갖춘 선박을 추가로 사들여 국내외 해저케이블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임

- 20일 업계에 따르면, LS마린은 2000억원을 투자해 1만t 이상급 CLV를 구입하는 계획을 연내 확정할 예정임. 현재 CLV를 건조할 조선사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2028년 이후 인도받는 것을 목표로 함

[\(국민일보 2024.8.20\)](#)

4. 코오롱글로벌, '풍력개발펀드 조성'... 풍력 입지 굳힌다

- 코오롱글로벌이 국내 육상풍력개발을 위해 은행, 자산운용사와 손을 잡음. 코오롱글로벌은 '육상풍력개발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힘

- 이번 협약에는 코오롱글로벌, 하나은행,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엠디엠자산운용 등이 참여함.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육상풍력발전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EPC 운영 및 엔지니어링 총괄 등을 수행하기로 함

[\(중소기업신문 2024.8.20\)](#)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8.16(금) ~ 2024.8.22(목)

제공일시 2024 08 3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美 에너지부, 탄소 포집 및 제거 R&D에 1700억원 투자

- 미국 정부가 또다시 탄소중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R&D 투자 소식을 전했다
- 미국 에너지부(DOE)의 탄소관리 및 화석에너지 사무소(FECM)는 19일(현지시간) 이산화탄소 포집·제거·전환(CCUS)에 관한 R&D 센터에 1억2750만 달러(약 1700억원)의 연방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지원금은 시멘트 생산시설과 발전소 등 탄소집약도가 높은 부문에 초점을 맞춰 비용 효율적인 CCUS 기술을 연구하는 테스트 센터에 투자될 예정이다
- FECM은 세 가지 부문에 자금을 투입할. 지원금은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와 시멘트 제조시설에는 테스트 센터를 확충하고 기존의 탄소 포집 시설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지원 부문은 지난해 에너지부가 발표한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을 기반으로 선정됐음. 로드맵은 시멘트, 화학, 식음료, 석유 정제 산업을 탄소 저감이 시급한 주요 탈탄소화 산업으로 꼽았음
- 미 연방정부는 해당 산업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연구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음
- 에너지부는 지난 6월 탈탄소화 기술에 관한 40개 프로젝트에 1억3500만 달러(약 1804억원)를 지원한 바 있음
- FECM 담당 차관보 브래들리 크랩트리는 “탄소 포집 및 저장은 국내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기 위한 중요한 경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테스트 센터에 대한 투자는 비용 효율적으로 CCUS를 상업적 규모로 확장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정부가 이 부문의 기술 개발에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해 탄소 포집 및 저장 용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임
- 코트라는 16일 미국의 CCS 관련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청정에너지 실증국은 지난 4월 미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저장 용량이 18~80배까지 늘어나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음
- 탄소 포집량은 늘어나고 있음
- 글로벌 산업조사기관인 블룸버그NEF(BNEF)는 2023년 말 기준 연간 2300만톤 수준의 미국의 탄소 포집 규모가 2035년까지 1억6400만톤 규모로 7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음. 미국 정부가 청정수소 산업을 지원함에 따라 2030년부터 수소 생산이 천연가스 가공 부문을 미국의 최대 탄소 포집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음
- 앞으로의 과제는 여러 경로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지정된 격리 장소까지 이동시킬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임. 미국 에너지부는 2050년까지 최대 9만6000마일(약 15만km) 규모의 파이프라인이 구축돼야 한다고 추정했음. 현재 운영 중인 파이프라인은 약 5000마일(약 8000km)에 불과함

- 실질적인 지원도 뒤따르고 있음

- 미국은 지난해 3월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수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CCS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음. FECM은 지난 5월 이산화탄소 수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5억 달러(약 6680억원)의 투자를
발표했음

[\(임팩트온 2024 8 22\)](#)